

[사회]

의학전문대학원도 수도권 출신 점령

전남대 55.6%, 조선대 63.5% 차지...지역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광주지역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신입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 3월 개원하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수도권 출신자들이 대학원 졸업 후 출신지인 수도권으로 돌아가 개원 및 개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수도권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대학의 질적 수준저하와 인제 고갈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1일 전남대가 발표한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자 63명(수시 19명·정시 44명)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연세대

10명(15.9%),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가 각각 5명(7.9%), 경희대 3명(4.76%), 성균관대 2명(3.17%), 동국대·숙명여대·숭실대·건국대·서울시립대·한양대 각각 1명 등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55.6%인 35명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전남대(16명)와 조선대(2명) 등 18명(28.6%)에 불과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동대, 부산대 등 수도권과 광주·전남을 제외한 지역 대학 출신이 15.9%인 10명이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시합격자의 수도권집중은 더 심하다. 수시합격자 52명 중 이화여대 5명(9.6%), 연세대 4명(7.7%), 고려대 3명(5.8%), 가톨릭대·경희대·성균관

대·성신여대·인하대·중앙대 각각 2명(3.8%), 단국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여대·세종대·숙명여대·아주대·한국과학기술원·한양대 각각 1명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은 총 33명으로 전체의 63.5%에 이르렀다.

광주·전남지역은 조선대·전남대 각각 3명, 목포대·호남신학대 각각 1명 등 8명(15.4%)이었으며, 부산대, 충남대, 한동대 등 기타 지역 대학 출신은 전체의 21.2%인 10명이었다.

조선대의 경우 타 지역 출신의 출신 유턴을 우려해 수시모집에서 광주·전남지역 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정시모집에서 조선대 출신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지역대 출신 합격자가 많지 않았다.

조선대 조태훈 입학부처장은 "의학전문대학원 개원하면서 우려했던 현상"이라며 "하지만 수도권 대학 출신자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고향 사람'들도 꽤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수도권 출신의 비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3월 개원하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사정은 같았다.

최근 발표된 최종 합격자 120명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전남대 31명, 조선대 1명 등 32명(26.7%)에 불과했고, 연세대(16명), 서울대(12명), 고려대(10명), 이화여대(9명), 한양대(8명) 등 수도권 대학 출신자는 81명으로 67.5%에 달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2009학년도 광주지역 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출신대학 비율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31분 / 해질 17시21분 / 달출 16시39분 / 달몰 06시55분

군밤 생각나는 날
 맑다가 밤에 차차 구름이 많아 지겠다.

구분	구름	조금	1/12°C
광주	구름 조금	1/12°C	3/11°C
목포	구름 조금	3/11°C	5/12°C
여수	구름 조금	5/12°C	-3/12°C
완도	구름 조금	-3/12°C	-2/13°C
구례	구름 조금	-2/13°C	-2/13°C
해남	구름 조금	-2/13°C	-2/13°C
장흥	구름 조금	-2/13°C	-3/13°C
고흥	구름 조금	-2/13°C	2/10°C
순천	구름 조금	-3/13°C	0/13°C
영광	구름 조금	2/10°C	1/11°C
진도	구름 조금	1/11°C	-1/10°C
전주	구름 조금	-1/10°C	6/11°C
남원	구름 조금	6/11°C	
옥산도	구름 조금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3/11	-2/8	-2/10	1/13	2/10	0/7

5·18 단체 통합추진위 구성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 5·18 구수 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들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5월단체들은 내년 말까지 통합단체를 창립하고 5·18 30주년인 2010년 5·18행사는 통합단체 주관으로 열 계획이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 12명은 11일 5·18 기념재단에서 1차 임의회의를 열고 '5·18 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운영 방안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단체의 이사회로부

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합을 위한 활동 및 필요한 내용을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또 각 단체의 대표 3명을 공동대표로 하고, 5월단체들은 내년 말까지 통합단체로 선출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통합에 필요한 각 단체의 분기별 조성과 회원들의 이해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통합에 필요한 법률적·행정적 절차 및 정관 마련, 총회 등을 준비한다.

5·18단체는 오는 18일 2차 임의회의를 열고 정관 개정을 위한 '소회의' 구성을 논의하며 이어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5월 관련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11일 광주시 서구 상무동 5·18 기념재단에서 '5·18 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위정락기자 jrwi@kwangju.co.kr

해안지역 주민 혈중 수은농도 높다

한국인의 혈중 수은농도가 국제적 권고기준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어패류를 많이 섭취하는 해안지역이 일반지역보다 높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11일 공주대학교 연구팀(이진현 교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2천34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망간)과 요(尿)중 중금속(수은, 카드뮴) 농도 등을 측정했다. '제2차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혈중중 납과 수은, 카드뮴의 농도는 각각 평균 1.72μg/dL, 3.80μg/L, 1.02μg/L로 2005년의 1차조사(각각 2.66μg/dL, 4.34μg/L, 1.52μg/L)보다 낮아졌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권고기준(각각 10μg/dL, 15μg/L, 5.0μg/L)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은과 카드뮴 농도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본(각각 18.2, 1.92)보다는 낮았지만 미국(0.82, 0.47)이나 독일(0.58, 0.44)보다는 높았다. 연합뉴스

"생산·유통 정보 공개...먹을거리 불안 해소" 500명 설문

광주 시민들은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모든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가 광주경실련에 의뢰해 최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구입에 대한 소비자 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이같이 답변했다.

축산물의 안전수준에 대해 55%가 불안하다. 가공 식품은 63%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된 식품제조자나 생산자에 대해서 42.9%가 무한책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부담이 부담한(40%),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 필요(38.5%), 부재료 원산지 표시의 의무화(37.7%), 식품집단지소제 도입(27.3%) 등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구매 기준은 44.8%가 등급이나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응답했으며 23.3%는 국내산 여부를, 18.2%는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답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기는 42.8%가 찬성했고 강한 신속과 감시가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27.5%에 달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33.9%가 철저한 단속강화가 33.9%로 가장 많았고 생산과 유통과정 공개(25.3%), 살충제 있는 정부제도 마련(24.8%),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15.2%) 순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입냄새 없애려면 홍삼 드세요

임상실험 결과 효과 탁월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한 입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입냄새는 보통 구강질환이 있거나 입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부패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위장내 헬리코박테라피로리균도 구강악취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결과 항생제 투여그룹의 헬리코박테라 균 제거율은 80%에 그쳤지만 홍삼을 함께 투여한 그룹은 93.3%까지 높아졌다. 또한 구강악취 개선효과도 항생제만 투여한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간 섭취토록 한 결과 38명(55.8%)에게서 질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번 임상실험은 최종 3차까지 이뤄졌다.

2차 임상에서는 1차 연구에서 입냄새에 변화가 없는 30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테라균을 억제하는 항생제만 투여한 그룹과 홍삼을 항생제와 함께 섭취한 그룹으로 나눠 비교 관찰했다.

이 결과 항생제 투여그룹의 헬리코박테라 균 제거율은 80%에 그쳤지만 홍삼을 함께 투여한 그룹은 93.3%까지 높아졌다. 또한 구강악취 개선효과도 항생제만 투여한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현역병·상근예비역 내년 임영일자 확정

내년도 임영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개인별 임영일자와 임영부대가 확정돼 12일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와 병무민원 대표전화(1588-90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11일 밝혔다.

이번에 임영일자와 부대가 결정된 자원은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임영대상으로 관정을 받은 사람 중 고졸 이하인 자, 대학과 대학원 재학으로 임영이 연기된 사람 중 내년 졸업 예정자, 재학생 임영희망원을 출원한 사람 중 내년에 임영을 희망한 자 등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현역병 임영일자 안내문'을 이달 말까지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구분	100일	200일	300일	360일
1,000만원	103,498	53,520	36,887	31,352
3,000만원	310,497	160,560	110,560	94,056
5,000만원	517,490	267,600	184,435	156,760

광주문화실험

15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무보증 신용대출 1,000만원까지 가능!"

-사업장 카드체크기 무상임대-

*담보대출 안내

-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기타부동산 시세의 최고 70% (상가, 근린상가, 내대지, 전, 담, 임야 등)
- 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임대 보증금의 최고 70%(부영임대아파트 우대) (계약서, 인감 3통, 등·초본1통, 전입세대명령부, 인감도장, 신분증)
- 자동차담보대출: 대출한도: 선수금 5%이상을 제외한 차량금액 및 부대비용, 차량구입시 견적서 제출시 최고 우대혜택가능
- 특례보증대출: 대출한도: 소기업, 소상공인(개인사업자) 1천만원 무보증 대출 가능, 대출대상: 사업자 등록일 3개월 경과 사업자

*자영업자 대출 안내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최고 7,000만원
 사업장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거나 예정인 사업자
 상환방법: 100일부터 360일까지 자유롭게 선택가능
 일일상환대출 조건표(예시)

구분	100일	200일	300일	360일
1,000만원	103,498	53,520	36,887	31,352
3,000만원	310,497	160,560	110,560	94,056
5,000만원	517,490	267,600	184,435	156,760

문의본점: 266-4150 (문흥지구 첫 사거리) / 운암지점: 528-4150 (운암동 블루밍@단지 상가)
 양산지점: 573-4150 (양산택지구 사거리) / 블루밍지점: 513-4150 (광주문화예술회관 건너편)